

이야기를 통한 유아 내적 표상과 행동억제*

Narrative Representations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Preschool Children*

민성혜(Sung Hye Min)¹⁾

이 영(Young Lee)²⁾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of behavioral inhibition to narrative representations. Narratives of 96 four-year-old children were recorded and analyzed by the scoring system of Robinson, Holmberg and Klute(in press). Six clusters were found : Constrained(47.9%), Anxious/Restricted(23.9%), Emotional Integrated/Empathic(12.5%), Empathic/Avoidant(6.3%), Dysregulated(5.2%) and Anxious/Avoidant(4.2%) clusters. Behavioral inhibition was determined by observations using “Play with Unfamiliar Peers(Rubin et al., 2002)”. Behavioral inhibition differences corresponded to the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 clusters; The Anxious/Restricted Cluster was related to more and the Emotional Integrated/Empathic Cluster to less inhibited behavior. In context-specific differences, more inhibited behavior was related to Anxious/Avoidant Clusters during show-and-tess and to Empathic/Avoidant Clusters during card-sorting activities, respectively.

Key Words : 유아 내적 표상(preschoolers’ narrative representations),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개인 지향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

I. 서론

사람은 새롭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혹은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어느 정도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인식하

고 반응하는 양상은 개인마다 다르며 이는 유아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유아는 새로운 상황에 비교적 빨리 적응하나 어떤 유아는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움츠러드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 이 논문은 2006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n, Sung Hy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21 Maeju-Ri, Sunghwan-Up, Cheonan-Si, Chungnam 330-707, Korea
E-mail : shmin06@nsu.ac.kr

때 유아들이 보이는 긴장이나 위축 등의 행동을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라는 개념으로 연구하는 학자들(Kagan, 1989; Kagan, Reznick, & Snidman, 1988; 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 Coll, 1984)이 있다.

지금까지 행동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연구 보고되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편도체의 과다행동(Kagan & Snidman, 1991), 높은 심장 박동율과 높은 코티졸(Kagan et al., 1988; Kagan, Reznick, Snidman, Gibbons & Johnson, 1988; Scarpa, Raine, Venables & Mednick, 1997; Schmidt, Fox, Rubin, Sternberg, Gold, Smith & Schulkin, 1997) 등의 생리적 요인과 기질에 관련된 선천적 특질 요인(Kagan et al., 1984; Stevenson-Hinde & Shouldice, 1995) 등이 행동억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었고, 이에 비해 애착(박성은 · 박성연, 2001; Stevenson-Hinde et al., 1995; Calkins & Fox, 1992), 부모의 양육행동(박성연, 1998; Belsky, Fish, & Isabella, 1991; Engfer, 1993; Fox, Henderson, Marshall, Nichols & Ghera, 2005; Rubin & Mills, 1990; Rubin, Burgess & Hastings, 2002)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들이 서로 일관되지 않음과 관련하여 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과 Chen(1997)은 생리적 요인이나 기질, 애착, 양육행동 등이 각기 행동억제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런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상위개념이 행동억제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다(Rubin et al., 1997)고 하였다.

Bowlby(1969, 1982)는 영아기에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애착의 질이나 지금까지의 양육과정에서 어머니가 한 양육행동,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정서성 등이 행동적인 또는

동기적인 체계의 기본적인 구조로서 통합된 개념으로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 즉 내적 표상을 제시하였다. 내적 표상은 새로운 상황에서 유아의 행동을 유도해주는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내적 표상은 통제체계 안에서 감각적인 투입과 인지적인 투입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특정 대상에의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특정 행동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한 개인이 관계에 대해 사용하는 이차적인 전략을 행동으로 반영하게도 한다. 이에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내적 표상의 존재가 가장 고도로 조직화된 통제과정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억제 반응에도 내적 표상이 영향을 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유아가 긍정적인 내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유아는 이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한다. 이런 유아들은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 때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다가갈 수 있다(Cassidy & Kobak, 1988; Cassidy, Marvin, & MacArthur Narrative Group on Attachment, 1992). 그러나 만약 유아가 부정적거나 회피적인 내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유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런 유아들은 낯선 상황에 대해 과장된 두려움을 보여 과잉긴장하거나 위축되거나 회피하기도 한다(Page & Bretherton, 2001; Solomon & George, 1999; Steele, Steele, Woolgar, Yabsley, Fonagy, Johnson & Croft, 2003; Warren, Oppenheim & Emde, 1996). 따라서 유아가 가진 내적 표상이 유아가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보이는 반응인 행동억제와 관련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유아의 내적 표상과 유아의 행동억제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다만 양육자인 어머니의 내적 표상과 유아기 자녀의 행동역제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Shamir-Essakow, Ungerer, Rapee와 Safier (2004)가 자녀를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표상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행동역제 수준이 높은 반면, 자녀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행동역제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을 따름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내적 표상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아는 상징적인 표상이 가능해지고 지식을 개념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Bretherton, 1985), 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 그리고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은 유아 내적 표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인 MacArthur Story Stem Battery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임상군 유아(신의진 · 이경숙 · 이혜란, 1999; 이경숙 · 정석진 · 신의진, 2003; Page & Bretherton, 2001; Toth, Cicchetti, Macfie, & Emde, 1997)와 정상군 유아(민성혜 · 신혜원 · 이 영, 2004; 신혜원, 2005; 유영미 · 이 영, 2001; 이희원, 2004; 임경민, 2004)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Robinson, Holmberg와 Klute(in press)는 유아 내적 표상을 보다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MSSB에서 이야기되는 주제와 관련 반응에 대해 개인 지향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할 것을 권하였다. 유아 내적 표상을 변인 지향적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에 기초하여 분석할 경우 유아 내적 표상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 지향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은 연구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정의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변인 지향적 접근

(variable-oriented approach)에 비해 연구대상 개개인을 행동, 계획, 가치, 목표 및 그에 대한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얽혀있는 조직적인 총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본다(von Eye & Bergman, 2003). 본 연구에서도 유아 내적 표상을 분석할 때 보다 유아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 지향적 접근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으로 그 유형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유아를 대상으로 행동역제를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고전적인 행동역제 실험인 ‘변형된 낯선 상황 실험’(정옥분 · 박성연 · 윤중희 · 도현심, 2002; Asendorpf, 1993; Garcia Coll, Kagan & Reznick, 1984; Kagan, 1989; Kochanska, 1991; Reznick, Gibbons, Johnson, & McDough., 1989; Shamir-Essakow et al., 2004; Stevenson-Hinde & Glover, 1996)을 통해 이루어졌다.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실험에 참여하여 자유놀이를 하고, 낯선 성인이 중간에 개입하며 영아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온 장난감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낯선 성인에 대한 영아의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그러나 최근 연령에 따른 행동역제의 특성이 부각되면서 연령에 따라 행동역제를 측정하는 실험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영아기 때에는 발달 단계상 자기중심적이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동기가 크지 않아 낯선 성인과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의 실험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유아기에는 또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또래 사회에서의 인정과 수용이 중요하기 때문에(Berk, 2003), 낯선 또래에 대한 반응이 행동역제를 측정하는 보다 민감한 기준이 될 수 있다(Asendorpf, 1991, 1994).

Rubin과 Coplan, Fox와 Calkins(1995)는 연령에 따라 행동역제를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함에 기초하여 만 3-4세 유아에게 적절한 ‘낯선 또래

상황 실험'을 개발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유아의 행동억제 체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Stevenson-Hinde, 1989), 낯선 4명의 동성 또래가 있는 실험에서 낯선 또래들과의 놀이 맥락을 통해 행동억제를 측정하고 동시에 낯선 성인이 있는 과제 수행 맥락을 통해 행동억제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Rubin과 동료들(1995)은 이 관찰을 통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비사회적이고 정서적으로 조절이 부족하며, 과제 수행 맥락에서 몰입하지 못하는 유아를 행동억제 유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관찰들은 최근 국내외 행동억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정옥분 외, 2002; 정옥분, Rubin, 박성연·윤종희·도현심, 2003; Rubin, 2001; Rubin et al.,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방법과 결과들을 고려하여 유아의 행동억제가 유아 내적 표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개인 지향적 접근에 기초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내적 표상을 일대일 인형놀이 면접을 통해 측정하여 군집유형을 파악한 후, 실험실 관찰을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의 행동억제를 측정하여 유아 내적 표상과 유아의 행동억제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유아의 행동억제와 유아 내적 표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줄 것이며, 높은 행동억제 수준으로 인해 사회적 위축이나 내면화된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유아를 위한 조기 중재 프로그램의 마련과 치료 프로그램 구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내적 표상은 어떠한 군집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 내적 표상 군집별로 다양한 실험 맥락에서의 행동억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4세 유아 96명(남녀 각 48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시 서부교육청 관할 관인유치원 총 101개 기관에 연구협조문을 발송하고 이에 동의한 12개 기관을 통해 만 4세 유아의 부모에게 연구협조문을 보낸 다음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낯선 또래 상황 실험'의 조구성 지침(Rubin, Burgess, & Hastings, 2002)에 따라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에게 전화면접을 통해 자녀의 '접근-회피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질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유아' 1명과 '기질적으로 접근이 어렵지 않은 유아' 1명, 그리고 '평균 유아' 2명 등 4명을 한 조로 구성하여 총 26개조를 편성하였다. 유아의 '접근-회피 반응'은 Thomas와 Chess (1977)의 '부모용 유아기질 검사'를 서수경(1993)이 번안한 것 중 '접근-회피 반응'을 측정하는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에 연구 대상이 된 유아들이 정상범주에 속하고, 이야기 완성과제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유아인가를 선별하기 위해 '부모용 한국판 유아·청소년 문제행동 척도(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7)'와 '한국 웨슬러 유아 지능 검사(박혜원·곽금주·박광배, 1995)' 중 언어성 지능에 속하는 소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본 연구 대상이 된 유아들 모두 정상범주에 속하여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상의 절차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관찰대상이 총 104명(남녀 각 52명)이었으나, 실험 중간에 이탈하거나 어머니와의 격리불안으로 실험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 채점이 불가능한 8명이 제외되어 최종 분석 대상은 96명(남녀 각 4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만 4세로 선정 한 이유는, 유아가 만 5세가 되면 어느 정도 낮은 또래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므로 또래에 대한 행동억제 실험은 만 4세가 적절하다는 지침(Fox et al., 1995)에 의해서이다.

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은 4세 6개월이었고, 유아의 형제 수는 두 명 이상이 66.7%였고, 외동이 33.3%였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30대(아버지 : 89.6%, 어머니 : 81.3%)가 가장 많았고, 대졸(아버지 : 75.0%, 어머니 : 64.6%)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아버지가 사무직(52.1%), 어머니가 전업주부(81.3%)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은 200-300만원대가 68.8%로 나타나 2005년 2/4 분기 도시 근로자 4인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310만 9천원으로 제시된 자료(통계청, 2005)에 근거하여 보면 본 연구대상이 대부분 중류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측정도구

1) 유아 내적 표상

유아 내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와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이 개발한 이야기 완성과제(MacArthur Story Stem Battery : MSSB)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에게 정서적으로 부담스러운 주제인 부모와 애착관계, 가족 갈등, 친구와의 갈등,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13개의 에피소드와 도입부, 종결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가 유아에게 각 이야기를 제시한 후 유아가 나레이티브를 완성하는 개방적인(open-ended) 방법으로 실시하고, 유아가 완성한 나레이티브의 내용과 유아가 나타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들을 토대로 이야기 주제와 관련 반응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이야기 완성과제의 모든 과정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이야기 완성과제의 녹화된 자료는 Robinson, Holmberg와 Klute(in press)가 개발한 코딩체계에 근거하여 에피소드 별로 공감/온화(Empathy/Warmth), 불안(Performance Anxiety), 회피/위축(Avoidant/Withdrawal),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Dysregulated Aggression), 정서적 통합(Emotional Integration) 범주의 하위 항목에 코딩하고, 코딩된 주제 내에서 Robinson과 동료들(in press)의 점수 체계에 의해 점수화한다.

본 연구자는 이야기 완성과제의 실시 절차와 채점을 위해 JoAnn Robinson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본 연구자와 훈련에 함께 참여하였던 다른 아동학 전공자인 대학원생 한 명이 전체 자료 중 20%인 24사례에 대해 점수화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를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전체 이야기 주제와 관련 반응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86이었다. 또한 같은 자료를 가지고 1주일 후에 본 연구자가 다시 분석하여 관찰자내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관찰자내 신뢰도는 .93이었다.

2) 행동억제

유아의 행동 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Rubin, Coplan, Fox와 Calkins(1995)가 개발하고 Rubin, Burgess와 Hastings(2002)가 수정한 ‘낮선 또래

상황 실험'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낮선 또래 상황 실험'의 대상은 Rubin과 동료들(2002)의 지침에 따라 이전에 서로 본 적이 없는 낮선 동성 또래 4명을 1조로 구성하였다. 실험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유아들이 같은 실험조에 속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정하였다. 같은 실험조에 배치된 유아들은 생년월일에서 서로 6개월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구성하며, 기질적으로 접근-회피성(approach-withdrawal) 반응이 서로 다른 유아들로 구성하였다.

부모와의 전화 면접을 통해 유아의 접근-회피 반응을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위 25%를 '기질적으로 접근을 어려워하는 유아'로, 하위 25%를 '기질적으로 접근을 어려워하지 않는 유아'로 분류하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낮선 상황 실험'의 각 조는 '기질적으로 접근을 어려워하는 유아' 1명, '평균 유아' 2명, '기질적으로 접근을 어려워하지 않는 유아' 1명으로 구성되었다.

'낮선 또래 상황 실험'은 Rubin과 동료들(2002)

이 유아의 행동억제 반응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5단계로 구성된 실험절차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각 실험집단에 속한 낮선 동성 또래인 4명의 유아가 약 40분에 걸쳐 실험에 참여하게 되며, 이 때의 진행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낮선 또래 상황 실험'에서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자료를 관찰하면서 행동억제 채점 기준(Rubin et al., 200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첫째로, 1단계와 5단계인 두 번의 자유놀이 시간 동안 쳐다보는 행동과 방관자적 행동, 2단계 정리정돈과 4단계 카드분류 시간의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10초 단위의 시간표집으로 연속 관찰하여 총 30분 총 180회 관찰 빈도 점수를 산출한다. 둘째로, 1단계 자유놀이 시간 중 첫 발표까지의 시간을 초단위로 점수화하고, 3단계 발표 시간에 유아가 실제로 이야기한 시간을 전체 발표 시간에 대한 비율로 점수화한다. 각 유아별로 모든 점수를 표준점수화(z-score)한다.

<표 1> '낮선 또래 상황 실험'의 단계

단계	맥락	내 용	실시 방법	시간배정
1	낮선 또래	비구조화된 자유놀이	유아들끼리 놀이실에서 연령에 적절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게 되며 어떤 개입도 받지 않는다.	15분
2		정리 정돈	연구보조자가 방에 들어가 정리를 지시하고 난 후 한쪽에 앉아있고 유아들끼리 정리를 한다.	
3	낮선 성인	발표 시간	낮선 연구자가 실험실에 들어가 유아들을 원형으로 앉히고 "순서대로 일어나서 다른 친구들에게 지난번 생일날에 대해 말해보라"는 지시를 한 후 유아들이 순서대로 일어나 발표하도록 권한다.	시간 정해져 있지 않음
4		카드 분류	연구자는 4개의 색으로 되어있는 카드 40장을 제시한다. 이를 색깔별로 분류하여 10개의 묶음으로 만들고, 각자에게 나눠준 상자에 넣으라고 지시한 후 실험실 한쪽에 앉아 있다. 유아들이 카드분류를 다 하면 종료한다.	
5	낮선 또래	비구조화된 자유놀이	유아들끼리 놀이실에서 연령에 적절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게 되며 어떤 개입도 받지 않는다.	15분

1단계와 5단계인 비구조화된 자유놀이 시 처다보는 행동과 방관자적 행동을 많이 할수록, 2단계 정리정돈과 4단계 카드분류 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을수록 행동억제 수준이 높고, 또래와 처음 대면하게 되는 1단계 자유놀이 시 발화를 늦게 할수록, 3단계 이야기시간에 발표시간이 짧고 단답형의 대답만 하는 경우 행동억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실험의 실시 절차와 행동억제 채점방법을 익히기 위해 본 연구자는 Kenneth H. Rubin과 Nathan A. Fox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으며, 신뢰도를 맞추어 보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하여 수정하였다.

행동억제 점수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 중 한 조의 기록 테이프와 1명의 유아를 무선으로 선택하여 본 연구자와 유아교사 경력이 많은 박사과정 학생 1인이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관찰자간 신뢰도 $r=.87$ 이었다. 또한 같은 자료를 가지고 1주일 후에 본 연구자가 다시 분석하여 관찰자내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관찰자내 신뢰도 $r=.89$ 이었다.

3) 한국판 유아·청소년 문제행동 검사

연구대상이 된 유아가 정상 범주에 속하는지를 선별하기 위하여 ‘부모용 한국판 유아·청소년 문제행동척도(오경자 외, 1997)’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CBCL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119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은 3점 척도(0점 : 전혀 없다, 1점 : 가끔 보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2점 : 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238점이다. 또한 K-CBCL에서 제시(오경자 외, 1997)한 대로 기준점 70T를 기준으로 정상과 임상을 구분하였다.

4) 한국 웨슬러 유아 지능 검사

이야기 완성과제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웨슬러 유아 지능 검사(박혜원 외, 1995)’ 중 언어성 지능에 속하는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K-WPPSI 중 언어성 지능에 속하는 소검사는 상식(27문항), 이해(15문항), 산수(23문항), 어휘(25문항), 공통성(20문항)의 5가지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소검사들에 따른 환산점수의 범위는 1-18점이다. 이러한 각 소검사들의 환산점수를 합하여 언어성 지능 점수를 산출하였다. K-WPPSI에서 제시(박혜원 외, 1995)한 대로 79점을 기준으로 경계선 여부를 결정하였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유아가 1회 실험실을 방문하여 행동억제를 측정하는 ‘낮선 또래 상황 실험’과 유아 내적 표상을 측정하는 이야기 완성과제를 시행하게 되므로 모든 실험 절차가 유아에게 적절한지, 모든 실험 조건들이 실험하기에 적절하게 준비가 되었는지, ‘낮선 또래 상황 실험’ 후 이야기 완성과제를 시행하기 전 유아에게 적절한 휴식방법과 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만 4세 유아 총 4조 16명을 대상으로 2005년 5월 28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낮선 또래 상황 실험’ 절차에 따라 유아들의 행동이 잘 관찰되고 시간배정도 유아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실험절차를 그대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행동억제 실험절차가 끝난 후 이야기 완성과제를 실시하기 전 간식을 제공하는 휴식시간을 10분 정도 주어 유아의 긴장하는 마음을 풀게 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부모의 자녀들 중 선정과 선별 과정을 거친 유아를 대상으로 대

학교 실험실에서 2005년 6월 4일부터 2005년 7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

유아 내적 표상과 행동억제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실을 방문한 유아들에게 일차로 행동억제 측정을 위한 ‘낮선 또래 상황 실험’을 실시하고 그 후에 이야기 완성과제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을 위해 방문한 유아들과 어머니들은 함께 대기실에서 대기하였으며, 연구원들이 유아들과 그 어머니들에게 개별적으로 실험절차를 설명하고 인구학적 변인을 조사하였다. 모든 유아들이 같은 시간에 실험실에 입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적 자료를 산출하고 유아 내적 표상에 대하여는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은 각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여 유사한 속성을 가진 관측값들을 묶는 군집분석 중 사례수가 적을 때 쉽게 군집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위계적 군집분석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그룹핑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군집을 포함하는 큰 군집을 형성하면서 다른 군집과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 아래서 진행되는 방법이다(이군희, 2004).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 내적 표상 군집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해 측정한 유아 내적 표상이 어떻게 군집화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섯 개 이야기 주제와 관련 반응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여섯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할 수 있었다.

여섯 개의 군집 특성을 이야기 완성과제에 대한 유아의 이야기 주제와 관련 반응으로 살펴보면 <표 2>, <그림 1>과 같다.

<표 2>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집 1에 속한 유아들은 이야기 완성과제에 대한 소개를 받거나 인형을 가지고 놀이를 해보는 위밍업 시간에는 무난하였으나 이야기 완성과제를 막상 시작하여 에피소드 1 ‘쥬스를 엮지른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하면, 걱정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신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대답자체를 회피하거나 검사자에 대해 무반응을 보이고, 제시된 이야기를 완성하기를 어려워하여 주로 “모르겠어요”라고 하거나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유아는 머리를 돌돌 말아 올리거나 손을 흔들거나 손가락을 빠는 등의 불안 행동을 보였다. 검사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하면 “기억이 안나요”라고 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어요”라고 하였다. 실시지침에 따라 유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났어?”라고 물어보면 “그냥 끝”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군집은 불안/억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2에 속한 유아들은 거의 모든 반응이 간략하고 감정의 변화도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잃어버린 열쇠 때문에 부모가 싸우는 이야기를 제시하면 유아는 “싸워”라고 응답하였고, 검사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물으면 “끝”이라고 말하였다. 쥬스를 엮지른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물으면 “영희가 닦아요”라고만 응답하는 경우 등이다. 검사자가 “어떻게 끝이 나니?”라고 질문하면 “이제 끝”이라고 대답하는 등 극히 간단한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종결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군집은 제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3에 속한 유아들은 공감 반응과 회피적

반응이 높고 정서적 반응도 높았다. 비교적 갈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공감/온화와 정서적 통합 이야기 주제와 관련 반응을 보이지만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면 자기를 그 장면에서 배제시켜버리거나 갑자기 잠 들어버린다고 하거나 주제를 이탈한 단순한 조작놀이를 하는 등의 회피 반응을 보이는 집단이다. 갈등의 정도가 가벼운 주스 엮지르기 이야기 등에서는 “엄마가 닭아주고 아빠가 다시 사와서 다같이 기분 좋게 먹어요”라는 등의 긍정적인 표상과 공감/도움주기, 보상/죄의식 등을 이야기하며 기쁨 정서를 이야기하지만 엄마아빠 둘이서만 있고 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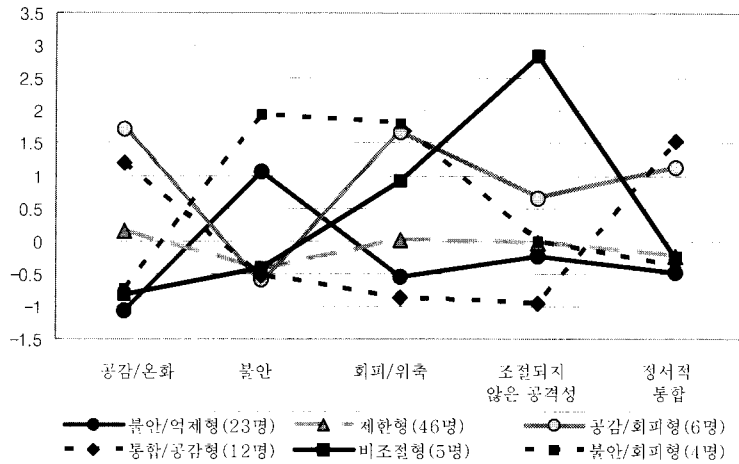
다고 주인공을 방에 들여보낸 후 엄마아빠 뽀뽀 소리가 들리는 배제 이야기에서는 “영희는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요 소파 밑에 숨어요”라고 이야기한다. 검사자가 “엄마가 영희한테 다시 방에 들어가라고 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물으면 영희는 들어가 잠이 든다는 회피적인 이야기로 종결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는 정서적인 표현이 풍부하게 나타났고 일관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되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군집은 공감/회피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4에 속한 유아들은 정서적 통합 반응과

〈표 2〉 유아 내적 표상 군집별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 코드 일원변량분석 (N=96)

이야기 주제와 반응	명수(%)	공감/온화	불안	회피/위축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정서적 통합
		M(SD)	M(SD)	M(SD)	M(SD)	M(SD)
군집 1 (불안/억제형)	23(18.9)	-1.08(.61)	1.06(.84)	-.54(.59)	-.23(.72)	-.49(.94)
군집 2 (제한형)	46(37.7)	.16(.48)	-.44(.57)	.02(.80)	-.03(.69)	-.24(.71)
군집 3 (공감/회피형)	6(4.9)	1.72(.81)	-.59(.34)	1.67(.65)	.65(.73)	1.13(.89)
군집 4 (통합/공감형)	12(9.8)	1.19(.54)	-.53(.58)	-.86(.55)	-.95(.38)	1.52(.47)
군집 5 (비조절형)	5(4.1)	-.82(.52)	-.42(.65)	.93(.93)	2.84(.78)	-.26(.64)
군집 6 (불안/회피형)	4(3.3)	-.73(.64)	1.94(1.03)	1.79(.47)	-.01(.31)	-.36(.15)
자승화	집단간	67.99	55.86	49.28	54.92	44.50
	집단내	27.01	39.14	45.72	40.09	50.59
	전체	95.00	95.00	95.00	95.00	95.00
df	집단간	5	5	5	5	5
	집단내	90	90	90	90	90
	전체	95	95	95	95	95
평균자승화	집단간	13.60	11.17	9.86	10.99	8.89
	집단내	.30	.44	.51	.45	.56
F		45.33***	25.69***	19.41***	24.66***	15.86***

*** p<.001



〈그림 1〉 유아 내적 표상 군집

공감 반응이 높으며 나머지 반응들이 낮은 경우이다. 이 군집에 속한 유아들은 검사자가 이야기를 제시하고 유아로 하여금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지시하였을 때 나름대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며 그 안에서 주인공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애정을 표시하며 부모를 긍정적으로 표상하고 주인공들이 장면에서 한 활동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야기 안에서 기쁨과 슬픔, 분노, 디스트레스, 염려 등이 골고루 나타났다.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일관적이고 풍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약상자를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웃에 갔을 때 동생이 피가 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검사자가 물으면 유아는 “영희(주인공 이름)가 동생 손을 만져주면서 휴지로 닦고 호 붙어주고 팬찰을 꺼라고 이야기해 줘요”라고 한다. 검사자가 “이제 엄마가 오셨어”라고 하면 유아는 “동생이 다쳤다고 이야기하고 영희가 휴지로 잘 닦아줬으니까 이제 안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동생도 안 아프다고 해요. 약 상자 안 만지고 휴지로 닦았다고 하니깐 엄마가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약상자 열어서 동생 손에

밴드 발라주고요 안아줘요”라고 이야기하여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일관된 해결책이 제시되도록 반응하였다.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아는 웃기도 하고, “기뻐어요” “슬퍼서 울었어요” “화가 났어요” 등의 언어적 표현으로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고 눈을 크게 뜨거나 입을 벌리는 행동 혹은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염려를 표시하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군집은 통합/공감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5에 속한 유아들은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반응을 많이 보이면서 동시에 회피반응을 많이 보였다. 주인공이 주스를 따르다가 실수로 주스를 엷지른 이야기에서조차 주인공은 부모에게 몽둥이로 맞고 방에 갇히기도 하였다. 부모가 여행을 가려고 타고 가던 자동차는 사고가 나서 부모가 죽거나 병원에 입원하고, 실수로 주인공이 뜨거운 냄비를 쏟자 주인공 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손을 다치고 얼굴을 다친다. 바위에 올라가던 주인공은 떨어져서 피가 나고 그것을 본 주인공 어머니는 주인공을 때린다고 하였다. 심한 경우 주인공은 잃어버

린 열쇠 때문에 싸우는 부모를 집에서 내쫓거나 죽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군집은 비조절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6에 속한 유아들은 불안 반응과 회피 반응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였다. 검사자가 제시하는 거의 모든 이야기에서 대답하기를 거부하거나 고개를 가로젓거나 “몰라요”라고 응답하고, 머리를 끄거나 손을 빠는 등의 불안 행동을 보이지만 불안/억제형과 달리 검사자가 지침에 따라 다시 한 번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질문하면 “엄마가 못 들었어요”라고 이야기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 인형은 왜 치마 입었어요?”라는 등의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질문하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이제 밤

이 되서 다 잤어요”라는 등의 갑작스런 수면을 이야기하여 회피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군집은 불안/회피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유아는 <표 2>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한형(37.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불안/억제형(18.9%), 통합/공감형(9.8%), 공감/회피형(4.9%), 비조절형(4.1%), 불안/회피형(3.3%)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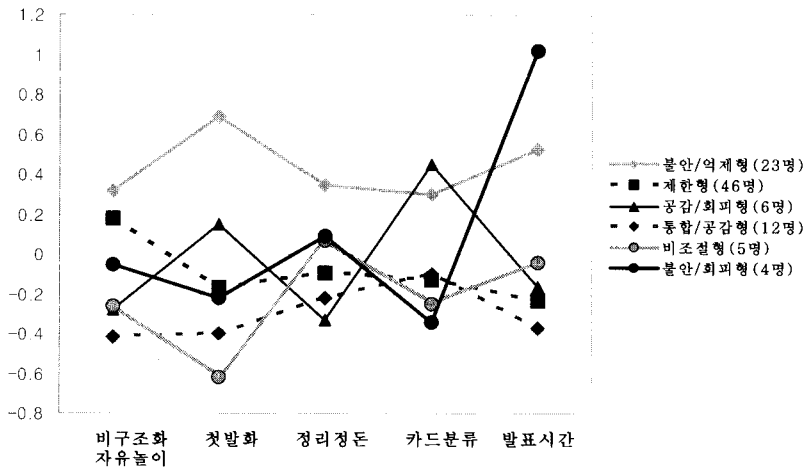
2) 유아 내적 표상 군집별 행동억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낮선 또래와의 자유놀이 맥락에서, 그리고 낮선 성인과의 과제 수행 맥락에서 행동억제 수준을 표준점수화(z-score)하고, 유아 내적 표상 군집별

<표 3> 유아 내적 표상 군집별 행동억제 수준 (N=96)

군 집	명수(%)	낮선 또래 맥락			낮선 성인 맥락	
		비구조화 자유놀이	첫발화	정리 정돈	카드 분류	발표 시간
		M(SD)	M(SD)	M(SD)	M(SD)	M(SD)
불안/억제형	23(18.9)	.32(1.23)	.69(1.24)	.35(1.01)	.30(1.38)	.53(.88)
제한형	46(37.7)	.18(.96)	-.17(.81)	-.09(1.02)	-.13(.64)	-.23(.91)
공감/회피형	6(4.9)	-.28(.71)	.15(1.18)	-.33(1.10)	.45(1.61)	-.16(.65)
통합/공감형	12(9.8)	-.42(.79)	-.40(.82)	-.22(.81)	-.10(1.20)	-.37(1.36)
비조절형	5(4.1)	-.26(.20)	-.62(.09)	.07(1.06)	-.25(.38)	-.04(.83)
불안/회피형	4(3.3)	-.05(.87)	-.22(.39)	.09(.99)	-.34(.29)	1.02(.31)
자승화	집단간	8.42	16.41	4.66	5.01	14.88
	집단내	86.58	78.59	90.34	89.99	80.12
	전 체	95.00	95.00	95.00	95.00	95.00
df	집단간	5	5	5	5	5
	집단내	90	90	90	90	90
	전 체	95	95	95	95	95
평균자승화	집단간	1.25	3.28	.93	1.01	2.98
	집단내	.96	.88	1.01	1.00	.89
F		2.20*	3.76**	1.52	1.00	3.34**

**p<.01 *p<.05



<그림 2> 유아 내적 표상 군집별 행동억제

유아의 행동억제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 <그림 2>와 같다.

<표 3>과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째, 유아 내적 표상 군집별로 행동억제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내적 표상에서 불안/억제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이 낮은 또래 상황에서 다른 유형보다 행동억제를 많이 보였고, 통합/공감형을 보인 유아들이 행동억제를 전반적으로 적게 보였다. 즉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제시된 이야기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불안 행동을 많이 보인 유아들이 ‘낮선 또래 상황 실험’의 거의 모든 맥락에서 행동억제를 많이 나타냈다. 반면, 제시된 이야기에서 주인공들 간에 공감이 오고가고, 서로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부모표상을 보이고,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그 안에서 정서적 반응들을 풍부하게 표현한 유아들이 실험 상황에서 행동억제를 적게 나타냈다.

또한 내적 표상 군집별로 행동억제 수준이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내적 표상에서 회피 수준이 높은 유아들은 낮은 상황의 맥락에 따라 행동억제 수준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달랐

다. 다시 말하면, 내적 표상에서 불안이 높았던 유아 중에 불안만 높은 불안/억제형에 속한 유아들은 거의 모든 맥락에서 높은 행동억제 수준을 보인데 반해, 불안과 회피가 함께 높은 불안/회피형에 속한 유아들은 다른 모든 맥락에서는 불안/억제형보다 낮은 억제 수준을 보였으나, 발표 맥락에서만 가장 높은 억제 수준($M=1.02, SD=.31$)을 보였다. 예를 들면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불안 행동을 많이 보이다가 검사자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권하면 주인공을 배제시켜버리거나(C: 영희는 학교갔어요) 가족 성원을 배제시켜버리거나(C: 엄마랑 아빠는 회사 갔어요), 이야기 전체를 거부하는(C: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등의 반응을 하는 불안/회피적 특성을 가진 유아들은 ‘낮선 또래 상황 실험’의 발표 맥락에서 낮은 성인이 자신의 이름을 호명한 후에도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고 거의 얼어붙어있는 듯이 한 자리에 앉아있었으며 일어나서도 거의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옷을 집어 올리거나 손을 빼는 등의 불안 행동만을 보이다가 낮은 성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라고 물으면 고개를 가로젓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내적 표상에서 공감이가 높았던 유아들 중에 정서적 통합과 공감이가 높은 통합/공감형에 속한 유아들이 실험 상황의 거의 모든 맥락에서 낮은 행동억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해, 공감과 회피가 함께 높은 공감/회피형 유아들은 낮은 또래와의 자유놀이 맥락과 낮은 성인과의 정리정돈 맥락에서는 통합/공감형보다 낮은 행동억제 수준을 보였으나, 낮은 또래와의 자유놀이 맥락에서 또래에게 첫 발화($M=.15, SD=1.18$)와 낮은 성인과의 발표 시간 맥락($M=-.16, SD=.65$)에서는 통합/공감형(낮은 또래에게의 첫 발화: $M=-.40, SD=.82$, 낮은 성인과의 발표 시간: $M=-.37, SD=1.36$)보다 높은 억제 수준을 보였다. 예를 들면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주인공들 간에 공감이 오고가고, 서로 도움을 주며 애정이 표현되고 긍정적인 부모표상이 나타나는 공감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주인공을 장면에서 배제시켜버리거나 이야기 전체를 거부하거나 환상적인 해결을 하거나(C: 해리포터가 나타나서 데려갔어요) 주인공이 갑자기 자버리는 등의 회피 반응을 하는 공감/회피형의 특성을 가진 유아는 낮은 또래 상황 실험의 대부분의 맥락에서 낮은 억제수준을 보이다가 맞고 틀리고의 답이 있는 과제를 수행하거나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장 높은 억제 수준을 보였고 또래에게 말 걸기도 어려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나타난 반응들의 특성별로 내적 표상을 군집화하여, 각 군집별로 낮은 또래 상황 실험의 여러 맥락별로 비교해본 결과, 이야기 표상에서 회피를 많이 보이는 유아들이 맥락에 따라 다른 행동억제 수준을 보였다. 즉, 불안이 높은 유아도 회피 수준에 따라, 정서적 통합과 공감이 높은 유아도 회피 수준에 따라 억제 행동이 높아지는 맥락이 크게 달랐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내적 표상이 어떻게 군집화되는지를 살펴보고, 만 4세 유아 내적 표상 군집에 따라 유아의 행동억제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개인 지향적 접근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만 4세 유아 내적 표상이 어떻게 군집화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총 여섯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할 수 있었다. 제한형(37.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안/억제형(18.9%), 통합/공감형(9.8%), 공감/회피형(4.9%), 비조절형(4.1%) 그리고 불안/회피형(3.3%)순이었다. 그 중에서 제한형과 불안/억제형이 가장 많았다.

유아 내적 표상에 대해 군집 분석한 선행 연구가 적어, 본 연구의 결과를 연령은 다르지만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한 Robinson과 동료들(in press)의 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emphis 지역의 만 6세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Robinson과 동료들(in press)의 연구에서는 총 다섯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되었다. 다섯 개의 군집은 통합/공감형(35.6%), 불안형(22.0%), 제한형(17.9%), 비조절형(16.9%), 그리고 공감/비조절형(7.6%)이었다. 한편 만 6세를 대상으로 한 Denver 지역 연구(Robinson et al., in press)에서는 통합/공감형(35.7%), 비조절형(22.7%), 제한형(17.7%), 불안형(13.0%), 그리고 공감형(10.9%)의 다섯 개 유형으로 군집화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군집화가 연구 대상의 특성을 예민하게 반영하므로 연구대상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인종구성에 따라 내적 표상의 군집화가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와 이들의 연구결과는 군집 유형의 종류에서 불안형과 불안/억제형, 통합/공감형, 비조절형을 같이 보였다. 그러나 군집 유형의 종류와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보였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제한형과 불안/억제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미국의 연구에서는 통합/공감형과 불안형이 많이 나타났고 특히 본 연구에서보다 비조절형이 많이 보고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4세 유아들과 미국의 6세 유아들은 갈등상황이 포함된 이야기에 대해 대답하기 어려워하고 검사자의 눈을 피하며 반응하려 하지 않거나 다리를 떨고 손톱을 깨무는 등의 불안 행동을 보이는 것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지만, 그 밖의 반응은 대체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제시된 이야기에 대해 본 연구의 대상 유아들은 간단한 대답(E: 무슨 일이 일어났니? C: 없어요, E: 슈스가 다 옆질러져버렸데. C: 영희가 닦아요)만을 하는 경향이 많았던 반면, 미국의 연구에서는 같은 에피소드에 대해 유아들이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조절되지 않은 충동적인 이야기 등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몇 가지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 유아들이 제한된 반응을 더 많이 보인 점을 한국 유아들과 미국 유아들의 정서적 표현 차이로 해석해볼 수 있다.

Chen, Rubin과 Sun(1992)은 캐나다 유아와 중국 유아를 비교 연구한 결과, 중국의 유아들이 보다 순종적이며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였고 이런 태도가 교사나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표출을 연구한 Zhou, Eisenberg, Wang과 Reiser(2004)는 30-50명의 학생들을 한 반에서 한 교사가 지도해야 하는 중국 상황에서 교사

가 개인의 정서에 반응하기는 어려우며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억제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의 부모들도 자녀의 독립심을 격려하면서도 자유로운 표현의 허용정도가 낮고 순종을 강조하므로(김현덕, 1992), 한국의 유아들도 중국의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정서를 솔직히 표현하지 않고 제한된 반응만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미국 연구의 대상 유아들의 연령차로 해석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만 4세인데 반해서 Memphis와 Denver 연구는 만 6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의 유아보다 미국의 유아가 통합/공감형을 많이 보인 것을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인지 발달 및 언어표현 능력의 발달 차이로 생각해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정서를 알아내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같은 방향에서 반응하는 것(Zahn-Waxler, 1991)을 의미하는 공감은 인지적 발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강연정, 2001). 따라서 미국 연구에서 통합/공감형이 많았던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실제로 공감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아직 공감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연령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대상의 사회 계층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상류층이었던데 비해서, Memphis와 Denver지역은 흑인 저소득층의 Head Start Program의 수혜를 받는 가족이었다.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경험들, 그리고 정신 신체적인 긴장과 공격성을 유발시켜서(김경희·황혜정, 1998)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이 경우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행동보다는

체벌과 같은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택하게 되므로 이런 양육행동은 자녀를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갖게 한다(어주경, 1998). 미국의 연구에서 비조절형이 많았던 것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가 유아의 내적 표상에 반영된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로, 유아 내적 표상 군집에 따라 행동 억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내적 표상에서 불안/억제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행동억제 수준을 보인 반면, 통합/공감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은 낮은 행동억제 수준을 보였다.

MSSB에서 극적으로 제시되는 모든 에피소드들은 유아로 하여금 그 상황을 해결하고 다양한 주인공들의 역할을 실행해보면서 복합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다 인지적이고 논리적인 기술을 요한다. 즉 유아가 일관적으로 제시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주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당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갈등상황을 고려하며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가진 유아는 낮은 또래 상황 실험에서 행동억제를 보이기보다, 크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낮은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야기를 일관적으로 해 나가는 능력은 유아가 얼마나 정서조절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Berk, 2003). 정서조절이 어려운 유아는 과제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하며 자신의 정서를 과도하게 표출하거나 회피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가 갈등상황을 제시하는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일관적으로 논리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유아가 정서를 조절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유아 내적 표상 군집에 따른 행동억제 수준의 차이는 맥락 특정적(context-specific)이었다. 즉 내적 표상 군집별로 행동억제 수준이 높아지는 맥락이 달랐다. 불안과 회피를 함께 보인 군집은 발표 맥락에서 높은 억제 수준을 보인 반면, 공감과 회피를 함께 보인 군집은 낮은 성인과의 카드 분류 과제 맥락에서만 높은 억제 수준을 보였다.

다시 말해 이야기 표상에서 회피가 포함된 표상군집에 속한 유아들은 실험 맥락에 따라 다른 수준의 행동억제를 보였다. 내적 표상에서 불안이 높았던 유아 중에 불안만 높은 불안/억제형에 속한 유아들은 거의 모든 맥락에서 높은 행동억제 수준을 보인데 반해, 불안과 회피가 함께 높은 불안/회피형에 속한 유아들은 다른 모든 맥락에서는 불안/억제형보다 낮은 억제 수준을 보였으나, 발표 맥락에서만 가장 높은 억제 수준을 보였다. 그런가하면 내적 표상에서 정서적 통합과 공감이 높은 통합/공감형에 속한 유아들은 거의 모든 맥락에서 낮은 행동억제 수준을 보였다. 반면 회피와 공감이 함께 높은 공감/회피형 유아는 낮은 또래와의 자유놀이 맥락과 낮은 성인과의 정리정돈 맥락에서는 통합/공감형보다 낮은 행동억제 수준을 보였고, 자유놀이 맥락에서 낮은 또래에게 말 걸기와 낮은 성인과의 발표 시간 맥락에서는 통합/공감형보다 높은 억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적인 전략의 사용여부가 행동억제의 수준을 다르게 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회피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유아는 주인공을 해당 이야기에서 배제시켜버리거나(E : 엄마아빠가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C : 영희는 유치원에 갔어요), 가족 전체를 해당 이야기에서 배제시켜버리거나(열쇠를 잃어버려 부모가 싸우는 에피소드에서 C : 아빠는

회사가고 엄마는 시장가고 영화는 잠들었어요), 제시된 이야기를 거부하거나(E : 강아지를 잃어버렸데. C : 강아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주제를 이탈하거나(E : 엄마아빠가 잃어버린 열쇠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C : 선생님, 애들은 뭐해요?) 갑작스런 수면을 하는(C : 이제 모두 다 자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제시된 에피소드 상황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한다.

유아가 회피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Bowlby(1969/1982)는 '방어적 배제(defensive exclusion)'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유아는 고통스런 정보를 접하는 경우 그 정보를 인지와 기억에서 적극적으로 제외하려는 방어적 배제를 한다(Bowlby, 1969/1982). 유아는 유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이나 고통스런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 내적 표상의 계층적 조직화에 따라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적 표상에 그 정보를 통합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만일 그 갈등이나 고통스런 정보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표상의 균형을 깨거나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배제시키고 익숙한 표상만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제시되는 갈등상황에서 주인공이나 가족들 장면에서 배제시켜버리거나 이야기하는 아동 자신을 배제시켜 버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불안/회피형 유아들은 내적 표상에서 불안 반응을 많이 보이므로 낮은 또래 상황에서 행동 억제 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자유놀이 맥락이나 과제 수행 맥락에서 행동억제가 낮은 것은 유아교육기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익숙한 환경구성과 놀잇감, 그리고 또래들과의 자유놀이, 정리정돈 및 교사 같은 낮은 성인이 지시하는 과제 수행 맥락에서는

방어기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회피 전략을 보일 필요가 없고 따라서 행동억제를 덜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이름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호명되고 그 후 낮은 또래들과 낮은 성인이 자신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일어나야하고, 일어난 상황에서 생일잔치에 대해 발표하라는 예기치 못한 지시를 받았을 때만 행동억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안/회피형 유아들이 많은 경우 행동억제 수준이 낮다고 하여 모든 상황에서 행동억제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회피적인 전략은 일시적인 유기체의 균형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적응 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회피적인 전략은 긍정적인 정서 조절과 부적관계를 보이며(이은영, 2002), 사회적 적응과 부적관계를 보이고(이현정, 1997), 행동문제 특히 내면화된 행동문제와 정적 관계(박진아, 2001)를 보였다. 그러므로 회피적인 전략의 사용이 단기적인 문제해결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궁극적인 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공감과 정서적 통합이 함께 높았던 통합/공감형 유아들이 낮은 또래와의 자유놀이 맥락이나 낮은 성인과 과제 수행 맥락에서 모두 행동억제 수준이 낮았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공감과 회피를 함께 보인 공감/회피형 유아들은 낮은 또래와의 자유놀이 맥락과 발표 맥락에서는 통합/공감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억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낮은 또래와의 자유놀이 맥락 중 발표에서는 불안/억제형보다는 낮은 행동억제 수준이었지만 통합/공감형보다는 높은 행동억제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공감과 회피를 함께 보이는 공감/회피형 유아들이 낮은 또래와의 자유놀이 맥락에서

또래와 섞여 놀이를 할 수는 있으나 먼저 또래에게 놀이를 청하거나 말을 거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은 또래에 의한 거부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 억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감/회피형 유아들은 겉으로는 공감 반응과 정서적 통합이 드러나 보이지만 한편으로 회피 표상을 함께 가지고 있어 유아의 궁극적인 사회 적응과 사회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유아 내적 표상 군집에 따라 전반적인 행동억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유아 내적 표상 군집에 따른 행동억제 수준의 차이는 맥락 특정적이었다. 즉 내적 표상 군집별로 행동억제 수준이 높아지는 맥락이 달랐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행동억제는 다양한 맥락에서 유아 내적 표상의 개인적 특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추후 연구 과제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유아의 내적 표상 군집화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자료이나, 내적 표상군집에 대한 신뢰로운 자료가 축적되었을 때 비교문화적인 연구가 수월하리라 생각되므로 좀 더 많은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또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자원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유아 내적 표상과 행동억제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들은 전집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집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묶인 군집간 사례 수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례 수를 늘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수를 적절하게 늘림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 군집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려된다. 군집화는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유아 혹은 아동의 특성을 비슷한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써 이런 군집화를 한 후 그 군집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개인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시도는 그에 대한 첫 시도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연정(2001). 집단구성 · 연령 ·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희 · 황혜정(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1(1), 12-26.
- 김현덕(1992). Socialization process of children within the family-Cross-cultural study in Korea, Japan, India and the U.S.A.-. **교육학연구**, 30(2), 263-278.
- 민성혜 · 신혜원 · 이 영(2004).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내적 표상 발달. **이동학회지**, 25(6), 153-170.
- 박성연(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유아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36(4), 19-33.
- 박성은 · 박성연(2001). 유아의 초기 정서성, 양육행동 및 모자녀 애착과 남 · 여 유아의 행동억제 간의 관계. **이동학회지**, 22(2), 29-47.
- 박진아(2001). 학령기 유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원 · 광금주 · 박광배(1995). **K-WPPSI 지침서**.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 서수경(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의진 · 이경숙 · 이혜란(1999). 학령전기 유아의 심적 표상 : 부모에 대한 심적 표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아 · 청소년 정신의학**, 10, 21-33.
- 신혜원(2005). 3-4세 유아 애착행동과 애착 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영미 · 이 영(2001).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1), 63-74.
- 오경자 · 이혜련 · 홍강희 · 하은혜(1997).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앙적성연구소.
- 이경숙 · 정석진 · 신의진(2003). 학령전기 학대유아와 일반유아의 이야기 표상 차이 : 양육자, 자기, 표상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6(2), 71-86.
- 이근희(2004).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 법문사.
- 이은영(2002). 과제 상황별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정서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유아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원(2004). 유아 내적 표상과 문제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경민(2004). 유아 내적 표상과 사회적 상호작용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옥분 · 박성연 · 윤종희 · 도현심(2002). 걸음마기 유아의 행동억제 :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4), 71-88.
- 정옥분 · Rubin, K. H., 박성연 · 윤종희 · 도현심(2003). 영아기 기질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2-4세 유아의 행동억제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8개국 비교문화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29-38.
- Asendorpf, J. B.(1991). Inhibited children's coping with unfamiliarity. *Child Development*, 62, 1460-1474.
- Asendorpf, J. B.(1993). Beyond temperament : A two-factorial coping model of the development of inhibition during childhood.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pp. 265-290).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sendorpf, J. B.(1994). The malleability of behavioral inhibition : A study of individual developmental fun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12-919.
- Belsky, J., Fish, M., & Isabella, R.(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21-431.
- Berk, L. E.(2003). *Child Development(6th ed.)*. Boston : Allyn & Bacon.
- Bowlby, J.(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3-35.
-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 N., &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 *MacArthur story-stem battery*. Unpublished manual.
- Calkins, S. D., & Fox, N. A.(1992). The relations among infant temperament, secur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al inhibition at twenty-four months. *Child Development*, 63, 1456-1472.
- Cassidy, J., & Kobak, R. R.(1988). Avoidance and its relation to other defensive process. In J. Belsky & T. Nezworski(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pp.300-32).
- Cassidy, J., & Marvin, R. S., with the MacArthur Working Group on Attachment(1992). *A system for Classify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ttachment-Behavior of 2 1/2 to 4 1/2-year-old Children*. Unpublished coding manual. University of Virginia.
- Chen, X., Rubin, K. H., & Sun, Y.(1992). Social repu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 A cross-cultural study. *Child*

- Development*, 62, 1336-1343.
- Engfer, A.(199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yness in boys and girls : A 6-year longitudinal study. In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pp. 49-79). Hillsdale, NJ : Erlbaum.
- Fox, N. A., Henderson, H. A., Marshall, P. J., Nichols, K. E., & Ghera, M. M.(2005). Behavioral inhibition : Linking biology and behavior within a developmental framework.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235-262.
- Garcia Coll, C., Kagan, J., & Reznick, J. S.(1984).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005-1019.
- Kagan, J.(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674.
- Kagan, J., & Snidman, N.(1991). Infant predictors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profiles. *Psychological Science*, 2, 40-44.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7-171.
- Kagan, J., Reznick, J. S., Clarke, C., Snidman, N., & Garcia Coll.(1984).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5, 2212-2225.
- Kagan, J., Reznick, J. S., Snidman, N., Gibbons, J., & Johnson, M.(1988). Childhood derivativ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 1580-1589.
- Kochanska, G.(1991). Patterns of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in children of normal and affectively ill mothers. *Child Development*, 62, 250-263.
- Page, T., & Bretherton, I.(2001). Mother-and father-child attachment themes as represented in the story completions of preschoolers in postdivorce families : Linkages with teacher rating of social competenc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 1-29.
- Reznick, J. S., Gibbons, J. L., Johnson, M. O., & McDonough, P. M.(1989). Behavioral inhibition in a normative sample. In J. S. Reznick(Ed.). *Perspective on behavioral inhibition*(pp.25-49).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binson, J., Holmberg, J., & Klute, M. M.(in press). Moving toward the person with the MSSB : State of the Art in Colorado.
- Rubin, K. H.(2001). 유아의 기질 및 또래 상호작용과 부모의 양육행동. 고려대학교 특강 자료집.
- Rubin, K. H., & Mills, R. S. L.(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n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419-435.
- Rubin, K. H., Burgess, K. B., & Hastings, P. D.(2002). Stability and social-behavioral consequences of toddlers' inhibited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s. *Child Development*, 73(2), 483-495.
- Rubin, K. H., Coplan, R. J., Fox, N. A., & Calkins, S. D.(1995).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preschoolers' social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7, 49-62.
- Rubin, K. H., Hastings, P. D., Stewart, S. L., Henderson, H. A., & Chen, X.(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 467-483.
- Scarpa, A., Raine, A., Venables, P. H., & Mednick, S. A.(1997). Heart rate and skin conductance in behaviorally inhibited Mauritia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182-190.
- Schmidt, L. A., Fox, N. A., Rubin, K. H., Sternberg, E. M., Gold, P. W., Smith, C. C., & Schulkin, J. (1997). Behavioral and neuroendocrine responses in shy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biology*, 30(2), 127-140.
- Shamir-Essakow, G., Ungerer, F. A., Rapee, R. M., & Safier, R.(2004). Caregiving representations of mothers of behaviorally inhibited and uninhibited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0(6), 899-910.

- Solomon, J., & George, C.(1999). The measurement of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childhood.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pp.287-316). New York, NY : Guildford Press.
- Steele, M., Steele, H., Woolgar, M., Yabsley, S., Fonagy, P., Johnson, D., & Croft, C.(2003).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children's emotion narratives : Links across generations. In R. N. Emde., D. P. Wolf., & D. Oppenheim(Eds.), *Revealing the inner worlds of young children*. New York,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Stevenson-Hinde, J.(1989). Behavioral inhibition : Issues of context. In J. S. Reznick(Ed.). *Perspective on behavioral inhibition*(pp.25-49).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venson-Hinde, J., & Glover, A.(1996). Shy girls and boys : A new look.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2), 181-187.
- Stevenson-Hinde, J., & Shouldice, A.(1995). 4.5 to 7 years : Fearful behavior, fears and worr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6), 1027-1038.
- Toth, S. L., Cicchetti, D., Macfie, J., & Emde, R. N. (1997).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 in narratives of neglected, physically abused, and sexually abused preschool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781-796.
- von Eye, A., & Bergman, L. R.(2003). Research strategie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Dimensional identity and the person-oriented approac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 553-580.
- Warren, S. L., Oppenheim, D., & Emde, R. N.(1996). Can emotions and themes in children's play predict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1331-1337.
- Zahn-Waxler, C.(1991). The case for empathy : A developmental review. *Psychological Inquiry*, 2, 155-158.
- Zhou, Q., Eisenberg, N., Wang, Y., & Reiser, M.(2004). Chinese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dispositional anger/frustration : Relations to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0(3), 352-366.

2006년 2월 28일 투고 : 2006년 5월 12일 채택